

광주U대회 400일 앞으로 ... 준비상황은?

‘실전 모드’ 조직 개편 ... EPIC 대회 ‘착착’

(환경·평화·IT·문화)

◇축사대회 위한 비용 절감=광주U대회 조직위는 지난 1월말 3단계 조직개편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회 실전준비체제에 돌입, 최고의 명품대회와 축사대회를 목표로 대회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광주U대회는 그간 축사대회를 목표로 시설과 운영, 양 측면에서 동시에 비용을 절감한다는 전략 아래 국제대스포츠츠연맹(FISU)과 끈질긴 협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얻어냈다.

FISU가 요구하는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총 68개 경기장 및 연습장 중 신설 경기장은 당초 5개에서 3개로 줄었고, 나머지는 개보수 등을 통해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

또 신설 경기장인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인근 대학 부지를 무상 활용해 건립함으로써 토지 매입비와 사후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게 됐다.

또한, 협상 결과 대회유산 프로그램, 대회관리 시스템, 국제중계방송 비용도 대폭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개·폐회식, 국제회의, 전야제, D-365행사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대회 운영비도 줄이기로 했다.

광주U대회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요인은 국제대스포츠 대회 사상 최초로 조직위가 마케팅 권리를 100% 확보했다는 것이다. 조직위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후원사로 직접 유치하고, 마케팅 수입 전액을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조직위는 비용절감과 수입 확대를 모두 1200억원 이상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자재수입 확대=조직위는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 후원 기업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월 IT부문과 통신부문 후원사인 SK C&C, SK텔레콤과 후원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기아자동차와 2015년 대회 전 기간 동안 VIP를 비롯한 대회 참가자 수송을 위해 1500여대 규모 자동차를 지원키로 후원협약을 맺기도 했다.

조직위는 올 연말까지 각 부문별 후원사 유치를 마무리하고, 후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업과 공동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식상품권 사업자로 봉제, 잡화, 의류, 문구 등 9개 품목군에 사업자를 선정 계약해 고정 로열티와 리빙로열티를 통한 수입확보에도 발판을 마련했다.

◇재건축 방식 선수촌이파트 건립=도심내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돼 선수·임원 등 1만4000여명이 사용하게 될 선수촌은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오는

지구촌 최대의 대스포츠 축제인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가 드디어 4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U대회는 2015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창조의 빛, 미래의 빛’ ‘Light Up Tomorrow’를 슬로건으로 전세계 170개국 선수단·임원진 등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광주U대회는 세계의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EPIC(Eco, Peace, IT, Culture) 대회로 치러진다. 즉 환경, 평화, IT, 문화 대회의 4대 비전을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유하면서 단순한 스포츠대회를 넘어 유무형의 유산을 남기는 대회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다.

- E**co 도심내 재건축 선수촌 아파트 내년 3월 완공
- P**ease 차세대 리더 양성프로 ‘광주 YLP’ 8월 개최
- I**T 기록체점 등 28개 시스템...유기적 경기 운영
- C**ulture UN 등 국제기구와 비전 공유 ... 유산 남기기

FISU 점검단 29일 방문...9월 인천표게시서 ‘현장 실습’

2015년 3월까지 3726세대 규모, 지상 15~33층 35개동을 건립해 선수촌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제대스포츠대회 선수촌 건립을 도심내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친환경대회(Ecovasiade)로 치르겠다는 비전 속에 대규모 국제대회 사상 세계 최초 사례다.

조직위는 올 9월까지 부대·편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 설치공사를 진행한다.

◇최첨단 대회운영통합시스템 5개 분야 28개 세부시스템 구축=광주U대회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대회운영통합시스템(TIMs: Total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

경기장 및 대회운영시설에 적용한다.

TIMs는 조직위의 대회운영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대회관리에 서부터 경기운영, 기록계측 및 체점, 경기정보보조, 대회지원 등 5개 부문 28개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돼 경기 운영 전 과정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2월 구축사업에 착수해 시스템 구성을 위한 요구분석단계를 완료하고, 지난 4월 테스트를 개시 후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과 기능 테스트에 들어갔다.

◇광주-UN 공동프로젝트 추진=스포츠교류를 통해 광주U대회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인 평화유니버시아드를 위해 UN스포츠개발화사무국(UNOSDP)과

광주U대회의 공동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광주에서 열린 UN스포츠개발화사무국(UNOSDP)과 조직위가 공동 개최한 세계 청년을 위한 국제멘토링 프로그램인 에픽스(EPICS)포럼과 차세대 리더양성을 위한 유스리더십 프로그램(YLP)은 UN공동프로젝트의 첫걸음으로써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최초로 광주에서 개최된 YLP는 북한 청년 4명이 함께 참가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2014 광주 YLP’가 8월 20일~31일까지 12일간 개최되고, 같은 달 27일에는 ‘에픽스포럼 2014’가 열리게 된다. 다시 한번 세계 청소년들의 가슴에 평화, 우애, 도전의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29일부터 FISU 국제경기위원회 2차 점검=29일부터 6월11일까지 FISU국제경기위원회(CTI) 존 외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38명)이 광주를 방문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종합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 11월 점검에 이어 두 번째이다.

수령을 제외한 20개 종목별 경기운영 준비 상황과 경기시설 현장 점검 위주로 실시한다. 또한 선수촌, 수송, 식음료, 안전 등 지원 분야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대회가 치러질 경기 및 훈련시설 등 총 65개 경기장을 찾아 조망, 계측장비 설치 및 의무실, 라커 룸, 샤워실 등 운영실 배치 계획 등 현장점검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조직위는 올 9월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에 15개 분야 40여명의 직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단순 참관인 아닌 분야별 대회 시작단계부터 20~60일 동안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와 함께 현장에 투입, 대회 운영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구 금호마을·남구 노대마을·광산구 수완마을

광주, 전국 첫 인권마을 2년 연속 선정

광주시가 인권도시의 명성을 잇기 위해 해 전국 최초로 인권마을을 2년 연속 선정,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7일 “서구 금호마을, 남구 노대마을, 광산구 수완마을 등 3개 마을을 인권마을로 추가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권마을은 인권의 가치를 배우거나 인권을 통해 마을을 들여다보고 궁극적으로 마을주민들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는 마을을 만들자는 것이다.

마을별로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람지킴이’, ‘따스지킴이’ 등의 별칭을 가진 각 마을의 주민인권지킴이 사업의견을 모아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들 마을에서는 주민아카데미를 열어 주민이 함께 인권을 공부하고 이웃사랑,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화제, 청소년 동아리 구성 및 진행, 학교와 연계한 다문화의 이해 교육, 아름다운 인생 스토

리(부, 권력, 명예가 아닌 우리 마을의 숨은 인생 스토리)를 가진 인물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권문화공동체(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동구 밤실마을, 북구 일곡마을, 광산구 운남마을 등 3개 마을을 인권마을로 지정해 시범, 운영했다.

광주시는 ▲인권조례, 인권헌장 등 규범 제정 ▲인권전담부서, 인권옹호부스맨, 인권거버넌스 등 제도 구축 ▲기본계획, 인권교육, 인권지표 등 정책 실행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인권문화 확산 및 국제교류 등을 추진해왔다.

이치선 광주시 민주인권정책담당관은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이 뿌리를 내리 면 보편적 인권도시가 자연스럽게 형성 될 것”이라며 “예산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폐건전지, 새 것으로 교환해 드려요”

시, 주민자치센터 등에 수거함

광주시는 27일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폐건전지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체해 준다”고 밝혔다.

폐건전지는 인근 주민자치센터와 학교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고, 공동주택은 동별로 우편함에 표시 부착된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폐건전지 20개를 주민자

치센터로 가져오면 새 건전지 1세트(2개)로 교환해 주는 ‘폐건전지와 새 건전지 교환사업’도 진행된다.

이종천 광주시 자원순환담당관은 “폐건전지의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시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특히 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협약을 통해 폐건전지 재활용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제1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모집

시 소방안전본부, 내달 24일까지 업체·개인 등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제1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신청업체를 오는 6월24일까지 접수한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해 우수기업상과 특별상을 수여하게 된다.

우수기업상은 일반서비스업·공공서비스업·에너지산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6개 분야, 특별상은 안전문화공로(개인, 공무원, 단체), 우수제품 등 2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우수기업상은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 발생과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 물의가 없고, 산업 재해율이 동 업종의 평균 이하인 업체이며 ▲특별상은 소방안전용품·안전장치 등을 개발 보급한 기업, 안전 문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안전인종일 사무국(02-3701-1641),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각 소방서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전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공인가

130만원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